

## 아시아 주요 문화도시와 광주시 '문화 교류' 추진

아키타·콜카타·치앙마이·두바이·타슈켄트와 내년 협정  
(일본) (인도) (태국)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시아권 5개 대표적 문화도시와의 문화교류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시의 아시아권 도시와의 문화 교류는 '역사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등을 표방하고 있는 경주시와 전주시에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적으로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인지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가 문화 교류만을 목적으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태국 문화부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문화포럼에 참석, 광주-치앙마이와의 문화교류 사업에 공감한 상태여서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6월 일본 아키타 등 아시아 5개 도시와



교류를 시작하는 '해외 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에 착수, 빠르면 2007년 내에 이들 도시와 교류협정을 맺거나 정기적인 문화 교류 채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류 대상 도시는 동북아시아권-일본 아키타와 남북아권-인도 콜카타, 동남아권-태국 치앙마이, 서남아권-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앙아권-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5곳이다.

일본 아키타는 인구 120만명의 전통 문화도시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등 동질감이 어

는 도시 보다 높은 곳이다. 교류 도시 중 인구가 400만명으로 가장 많은 인도 콜카타는 동부 인도의 중심도시로서 예술의 고장이자 문화의 도시로 정평이 나왔다.

태국 치앙마이는 50만명 규모로서 북부의 전통문화도시이자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인구 수가 150만명인데도 현대 문화도시로 인권도시인 광주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문화의 심장부이자 215만명의 인구 중 20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한류열풍의 도시다.

시는 아시아권 5개 도시 문화교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아시아권 교류 도시를 대폭 늘리는 한편 유럽 등 타 권역으로의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랑의 산타' 집배원들 '굴뚝이 없어도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해 드립니다.'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50명이 21일 발대식을 갖고 '사랑의 산타'가 됐다. 산타클로스 집배원들은 시민 150명이 우체국에 접수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해준다.  
/내무부기자 mjna@kwangju.co.kr

## “고건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

盧대통령 평통회의서 발언...고 전총리 “불쾌”  
“작통권도 없이 국방장관·참모총장 거들먹”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각계각층을 포용하고자 고건 총리를 기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가 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고 전 총리 관련 발언은 고 전 총리가 유력한 대권후보란 점에서 정국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대북정책 협의체제, 소위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를 또는 원로들을 모아 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좌우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독재, 이렇게 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렸다”며 “개념이 달라서 언어도 서로 통하지 않는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한번 해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다”고 전제한 뒤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 그 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길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며 “(고건 총리는) 하버트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김근태씨나 정동영씨

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 한 수준”이라며 “링컨 대통령이 포용 인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들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통권 반대론에 대해 “자기 군대 작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것이냐”면서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닌가. 흔들려라, 흔들려라. 난데 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건 전 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총리로 자신을 기용한 것을 ‘실패한 인사’로 규정한 데 대해 상당히 불쾌해했다. 고건 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발언을 자세하게 보고 받은 뒤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직접 대응은 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대신 고건 전 총리는 측근의 목소리를 빌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건 총리 캠프의 한 인사는 “참여정부에서 고건 총리가 재임했던 기간에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사상초유의 탄핵사태를 맞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기를 원만하게 수습한 고건 총리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포항공과대학교 50년 역사관 개관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 생원로본관 052-229-1114 ▶ 110620-0200-1  
새로 태어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am.ac.kr  
▶ 생원로본관 058-5231 ▶ 11061360-5000

## 준공영제 안착 가능성 보였다

광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첫날...지하철 50%·마을버스 30% 승객 증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첫날인 21일 환승 불편 등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졌지만, 지하철·마을버스 등의 승객이 늘고 배차간격이 빨라지는 등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8면〉

그러나 노선개편에 대한 정보 부족, 노년층의 구 번호체계에 대한 애착 등은 환승 불편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소형 안내책자를 들고도 적절한 환승 방법을 찾지 못해 운전 기사와 안내 공무원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허둥대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 앞 등 일부 승강장은 새로운 노선안내나 유인물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특히 노인과 주부 등은 노선 개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구 번호만 찾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인 급행 간선버스와 10~20분대인 간선버스 중 일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환승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는 경우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학생·회사원 등은 미리 달린 노선을 파악해 두거나 평소보다

10분 정도 미리 나와 차분하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무료 환승과 지하철·마을버스와 연계한 통합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지하철·마을버스 승객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지하철 이용 승객은 3만1천 명으로 평소 2만여 명보다 50%나 급증했다. 마을버스 승객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승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승강장 보안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inews@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889-1000

# 초기감기 퇴장! 콘택골드!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걸렸거나 생각되면 초기 감기약 콘택골드로 퇴장시키세요!  
불청객 감기의 파를 플레아엔 콘택골드를 잊지마세요!

유한양행 본사: 생원로 050-024-1188 수선사: 유곡로본관 (063352-5400) 대구: (053302-0515) 대전: (042527-3933) 부산: (051420-5471)